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엄경섭**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2005년 6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63호

한약재 유통도 이젠 실명제시대 실제 적용과정 '구멍' 많아 실효성 의문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하는 유통실명제가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한약유통체계를 투명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 대한 '구멍'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의거하여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은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다.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도 재배한 국산한약재를 한약재 제조업소 또는 한약재 도매업소에 판매할 때에는 생산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면적 재배가 대부분인 국산한약재의 경우 유통실명제가 시행에 들어간 것임은 물론 적용하기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생산농민이 직접 검사비용을 들여 검사까지 수행하기는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개개농가로부터 소량씩을 수집해 유통하는 중간상인들이 농가별 약재를 별도로 수거해 검사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한약재가 유통실명제로 검사기관과 연월일을 표기하여 유통토록 하고 있으나 국산한약재의 경우는 검사기관과 검사연월일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산한

약재 생산농가들의 현실적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서 농가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이긴 하나 일부에서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색내기' 용이 아니냐"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생산자증명만을 첨부해 도매업소나 제조업소에 공급할 경우 국산한약재의 판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국산한약재의 경우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행정안내자료에는 "한방병의원등 최종 소비자가 한약규격품을 구매할 시 검사기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산한약재의 유통실명제가 이름뿐인 생산자증명만으로 대체될 경우 한약유통체계를 투명화함으로써 식품용 수입약재의 변칙유통을 막아보자는 유통실명제 시행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건 회의적이란 반응이다.

또 이같은 국산한약재에 대한 예외조항이 한시적이라고 봤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는 생산농가나 단체가 엄격한 품질관리 및 유통시스템

을 자체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비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은 단서조항으로서 농가자가규격이 허용돼 있다고는 하나,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한방병의원들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은 국산한약재 그리고 생산농가들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산한약재에 대한 저렴한 비용의 검사 및 가공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에서 대한약전의 개정에 따라 "작약(백)"을 "작약"으로, "희침(주증희침)"을 "희침(주증희침)"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 "전충"을 "전갈"로 명칭 변경했다.

(문정희)

< 공 고 >

약용작물 GAP 및 이력추적제 교육 실시

- ◇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14~17시
- ◇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청 보건소 4층 회의실
- ◇ 교육대상 : 본회 임원, APC관리자 및 참여농가, 관련 지자체 담당자
- ◇ 교육일정

시간	내용	강사
14:00~14:15	개회식(국민의례, 협회장 인사)	본회 엄경섭 회장
14:10~15:00	GAP사업 추진방안	농림부 소비안전과 고경봉 사무관
15:10~16:00	이력추적제의 개념과 적용시 고려사항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이병서 박사
16:10~17:00	약용작물 모바일 이력추적시스템 적용사례	(주)유니온넷 임진택 대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지 면 알 내

-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안내 3면
- 유통시세정보 4면
- 'GAP TF팀 프랑스 연수' 를 다녀와서 5면
- 2005 약초기행 이모저모 8면

3년제 국립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특용작물학과 학생모집

전문생약인과 인삼특작허브분야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대학 특용작물학과에서 21세기 농업을 이끌 C.E.O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학 과	정 원	전형별 정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용작물	40	16	24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는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www.kn.ac.kr)

원서교부 · 접수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원서교부	2005. 6.27(월)~7.8(금)	2005.12.1(목)~12.23(금)
원서접수	2005.7.11(월)~7.15(금)	2005.12.26(월)~12.29(목)
합격자 발표	2005. 7.28(목)	2006.1.12(목)

선발대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출신고, 시장, 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특 전

- 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나. 교육교재 및 실습비등 학비 지원
- 다. 전교생 기숙사생활 및 숙식 지원
- 라.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 마. 국내외 선진농장 장기현장실습 지원
- 바.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영농정착자금 지원

문 의

- 한국농전 특용작물학과 (약·특전공) 장광진 교수
(☎ 031-229-5011, 5078 / H.P 018-358-5011)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
- 자세한 사항은 http://www.kn.ac.kr



한국농업전문학교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